

광주시청 근대5종 전용태 시즌 첫 우승

월드컵 3차대회서 금메달
2차 대회 준우승 이어 연속 입상
2년 만에 세계랭킹 1위도 탈환
전남도청 서창완은 아쉬운 4위



한국 근대5종의 간판 전용태(광주광역시청)가 29일(현지시간)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 열린 2023시즌 국제근대5종연맹(UIPM) 월드컵 3차 대회 남자부 결승에서 펜싱, 승마, 수영, 레이저 런(육상+사격) 점수 합계 1534점을 기록, 우승을 차지했다. 사진은 결승선에서 전용태의 모습. /연합뉴스

한국 근대5종의 간판 전용태(광주광역시청)가 2023시즌 국제근대5종연맹(UIPM) 월드컵 3차 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했다.

전용태는 29일(현지시간)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 열린 월드컵 3차 대회 남자부 결승에서 펜싱, 승마, 수영, 레이저 런(육상+사격) 점수 합계 1534점을 기록, 정상에 올랐다.

2020 도쿄올림픽 동메달리스트로 한국 근대5종에 사상 첫 올림픽 메달을 안긴 주인공인 전용태는 이번 시즌 국제대회에서 첫 우승을 달성했다.

이번 시즌 처음으로 출격했던 2주 전 튀르키예 앙카라 월드컵 2차 대회 준우승에 이어 연속 입상도 이뤘다.

이번 우승으로 전용태는 도쿄올림픽 금메달리스트 조지프 총(영국)이 2년여 동안 지키던 세계랭킹 1위도 되찾았다.

전용태는 이번 결승에서 펜싱 랭킹 라운드 1위(22초)를 시작으로 수영 4위, 승마 11위로 상위권에 자리 잡았고, 레이저 런에서 가장 먼저 결승선을 통과했다.

전용태는 "2차 월드컵 은메달에 이어 마침내 금메달을 따서 매우 기쁘다. 지난 대회 이후 한국으로 돌아가지 않고 유럽에 머물며 훈련했고, 오늘

결과에 만족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그는 "세계선수권대회와 항저우 아시안게임 준비에 집중하겠다"고 덧붙였다.

전용태는 올가을 예정된 아시안게임에선 개인전 2연패에 도전한다.

모하나드 사반(이집트·1530점)과 마르틴 블라

흐(체코·1525점)가 각각 은메달과 동메달을 가져갔고, 서창완(전남도청)이 1523점으로 4위에 자리했다. /연합뉴스

광주체고 윤은환 여자 창던지기 은메달 아시아청소년육상선수권

윤은환(16·광주체고)이 아시아청소년육상선수권대회 여자 창던지기에서 은메달을 수확했다.

윤은환은 29일(현지시간)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에서 열린 제5회 18세 미만 아시아청소년육상선수권대회 여자 창던지기 결승에서 49m01을 던져 2위에 올랐다.

51m23을 던진 팡위팅(중국)에게 우승을 내줬지만, 3위 후이 키레네(홍콩·47m86)는 1m15 차로 제쳤다.

남자 높이뛰기에서는 김현식이 2m01을 넘어 3위를 차지했다. 데브자브스 이스마일로프(우즈베키스탄)가 2m06으로 우승했고, 니루푸 라드나워라(스리랑카), 김현식, 두호양응기아(베트남)가 2m01을 넘었다.

실패 횟수가 3번인 라드나워라가 2위에 올랐고, 총 4번 바를 건드린 김현식과 두호양응기아가 공동 3위를 했다.

단거리 유망주들은 고전했다. 이은빈(16·전남체고)은 여자 100m 예선과 준결선을 뚫고 결선에 나섰지만, 개인 최고 11초92보다 0.25초 느린 12초17로 6위에 그쳤다.

박지영(16·경북체고)은 여자 100m 허들에서 14초71로 4위, 나현주(17·광주체고)는 남자 400m에서 48초94로 6위를 했다.

김동진(16·대구체고)은 남자 100m 결선에서 10초91로 7위를 했다. 자신이 중학교 3학년이던 지난해 세운 한국 중학생 기록 10초73보다 0.18초 느렸다. /연합뉴스

광주도시철도공사 신유나 아시안오픈유도대회 우승



광주도시철도공사 신유나(가운데)가 2023 쿠웨이트 아시안오픈유도대회에서 우승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광주도시철도공사 유도팀 제공>

신유나(광주도시철도공사)가 2023 쿠웨이트 아시안오픈유도대회에서 금메달을 따냈다.

신유나는 지난 29일 쿠웨이트시티에서 열린 대회 -57kg급 결승에서 엘마루키(미국)에게 반칙승(지도 3개)을 거두고 1위를 차지했다.

신유나는 준결승에서 파르다에바(투르크메니스탄)를 업어치기 한판승으로 제압, 결승전에 진출했다.

8강전에서는 카사피 파티오나(코소보)를 반칙승(지도 3개)으로 꺾었다.

신유나는 지난 13일 양구문화체육회관에서 열린 2023 양구전국실업유도선수권대회 겸 국제대회 파견 선발전 여자 -57kg급 결승에서 김새리(충북도청)를 결누르기 한판승으로 꺾고 우승을 차지, 쿠웨이트 아시안 오픈 출전권을 따냈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남지성, 광주오픈챌린저 테니스 '산뜻한 출발'

라이 꺾고 2회전 진출
조선대 이승민은 고배

국가대표 남지성이 광주오픈 국제남자챌린저 테니스 대회에서 산뜻하게 출발했다.

남지성(31·세종시청)은 30일 광주 진월국제테니스장에서 열린 2023 광주오픈 국제남자챌린저 테니스대회 예선 1회전에서 아지트 라이(뉴질랜드)를 2-1(5-7, 6-1, 6-2)로 꺾고 예선 2회전에 진출했다.

지난해 10월 이후 6개월여만에 광주 코트를 밟은 남지성은 경기 초반 서브에서 어려움을 겪으며 첫 세트를 듀스 접전 끝에 내줬으나 곧장 경기력을 회복하며 이어진 두 세트를 완벽히 가져오며 역승을 일궈냈다.

남지성은 경기를 마친 후 "첫 세트를 내줬지만 포기하지 않고 어떻게든 따라잡으려고 해서 이길 수 있었던 것 같다"면서 "서브를 비롯해 모든 기술이 급한 느낌이 있었고 제가 원하는 느낌이 아니었다. 내일 경기는 더 생각을 많이 하고 잘 준비해야 할 것 같다"고 냉정히 평가했다.

광주 코트는 남지성에게 희망을 안겨준 곳이다. 광주오픈에서 한차례 복식 우승과 준우승, 단식 준우승 경험이 있다.

남지성은 "광주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저랑 잘 맞는 코트이고 제가 좋아하는 느낌이라서 항상 결과가 좋았던 것 같다"며 "내려올 때마다 설레는 마음이 들고 이번 대회 역시 마찬가지"고 말했다.

남지성은 1일 도미니크 필란(체코)과 본선 티켓을 놓고 격돌한다. 32강 진출의 관문이다. 그는 "한 번도 상대해보지 않은 선수여서 충분히 분석을 해 봐야 할 것 같다"면서 "컨디션이 좋기 때문에 제가 원하는 경기력을 바탕으로 충분히 본선에 오를 수 있을 것이다. 공격적인 테니스를 보여드리겠다"고



남지성(세종시청)이 30일 광주 진월국제테니스장에서 열린 2023 광주오픈 국제 남자 챌린저 테니스대회 예선 1회전에서 아지트 라이(뉴질랜드)와 경기하고 있다. <광주시테니스협회 제공>

약속했다.

이어 "국내에서 열리는 대회이기 때문에 체력적인 부담도 적고 음식을 비롯해 모든 것이 편한 느낌이라서 덜 힘들게 느껴진다"며 "어떻게든 좋은 성적으로 팬분들께 보답하겠다. 한 게임 한 게임 제가 원하는 내용으로 이끌어 가면 좋은 결과는 당연히

따라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예선 1회전에서 대한민국은 이승민(조선대)이 0-2(0-6, 0-6), 신우민(안성시청)이 0-2(2-6, 0-6), 심우혁(양구군청)이 1-2(7-6, 2-6, 0-6)으로 고배를 마셨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즐거움

문화 산책



광주문화예술회관 문의 062)613-8233



2023년 광주상설공연
일시 : 2023-05-04(목) ~ 2023-05-28(일)
매주 목요일-일요일 오후 5시
장소 : 광주공연마루
문의 : 062)613-8379/8372



11시 음악산책
'을 댓 러브 III 이중섭, 도쿄로 보낸 편지'
일시 : 2023-05-30(화) 오전 11시
장소 : 광주문화예술회관 소극장
문의 : 062-613-8236

